

사·부·대·중

혜초 기념비 단상

조계사에서 6월 13일 중국 산시성(陝西) 선유사(仙遊寺)에 혜초(慧超)스님 기념비를 세우고자 지난 2월 말 사전 답사를 했는데, 그 답사팀에 동행하게 되었다. 이번 답사는 참으로 뜻깊었다. 중국 땅 선유사에 한국 스님의 기념비를 처음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도각스님 (중국대 강사, 불교사)

혜초스님(704~787)은 밀교 승려이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으로 더 많이 알려진 분이다. 그런데 변인석 교수가 <하녀녀담기우표(賀玉女潭新雨表)>에 주목하여 선유사가 스님이 당 태종의 명을 받아 기우제를 지낸 곳이며, 개발정책에 의해 곧 수몰된다는 사실을 전해에 따라 조계종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선유사!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지금은 담공사와 사찰 이전복원으로 분주하나 완공 후의 선유사를 상상하니 즐거웠다. 이곳은 백거이가 '장한가(張恒歌)'를 지은 곳이며, 98년 범람에서 진신사리 13과가 발견되어 주목을 끈 곳이다.

중국을 우리에게 인도 이상으로 중

요한 곳이다. 한국 스님들이 중국에 남긴 족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혜초스님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국 4대 역경가의 한분인 불공(不空)스님의 고족(高足)으로 역경가에는 스님이 항상 함께 하였다. 역경장이었던 대흥선사(大興善寺)에는 불공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런데 절 중앙에는 불공의 손자였던 일본스님 공해(空海)의 기념사업회에서 수자지장상(水子地藏像)을 세워 놓았다.

이 사실은 선유사와 대흥선사를 참배한 나에게 숙연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변인석 교수는 중국에 끼친 일본승려들의 영향을 일본 스님들은 그저 슬쩍 구경만 하고 갔다면서 그 미미함을 표현했지만 월등하게 뛰어난 자취를 남긴 한국 스님들의 족적을 기념하는데 우리는 관심이나 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서었다.

역대 고승들이 남긴 자취를 찾고 기념하며 그것을 거울삼아 더욱 정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힘을 추스렸다.

양에는 불공의 손자였던 일본스님 공해(空海)의 기념사업회에서 수자지장상(水子地藏像)을 세워 놓았다.

이 사실은 선유사와 대흥선사를 참배한 나에게 숙연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변인석 교수는 중국에 끼친 일본승려들의 영향을 일본 스님들은 그저 슬쩍 구경만 하고 갔다면서 그 미미함을 표현했지만 월등하게 뛰어난 자취를 남긴 한국 스님들의 족적을 기념하는데 우리는 관심이나 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서었다.

역대 고승들이 남긴 자취를 찾고 기념하며 그것을 거울삼아 더욱 정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힘을 추스렸다.

부처님 오신날 불국정토 서원

고려부터 현재까지 "불국정토 서원"

●연등축제의 기원

초파일이면 등을 밝히는 풍속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연등회'란 이름으로 집집마다 등을 밝힌 때는 고려시대부터다.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훈요십조'를 통해 팔관회와 연등회로 대표되는 불교의식을 널리 행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를 계기로 신라 때부터 성행했던 연등회·팔관회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2대 명절로 정착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관 중심의 연등행사는 중지되었으나 민가에서는 관동놀이, 호가놀이(呼歌) 등 불을 밝힌 재료를 구하기 위해 아이들이 깃발을 만들어 팔이나 돈을 구하는 놀이, 불꽃놀이 등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민속행사로 전래되었다.

●해방 전의 초파일 불국

기록상에 보이는 최초의 초파일 불국행사는 1911년 서울 각황사에서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러나 대규모 연등회는 1914년 음력 4월 15일 해인사에서 2만 연등회로 열렸다.

1921년 정부는 석가탄신일을 명절로 기념하는 물론 '관등날'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렀다. 1927년에는 불교중앙교무원이 중단차원에서 처음 법요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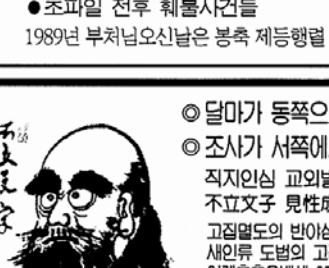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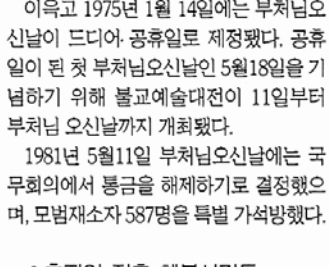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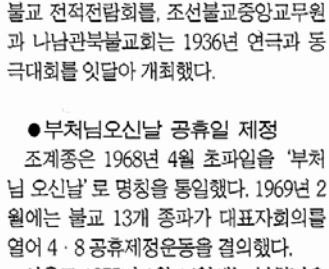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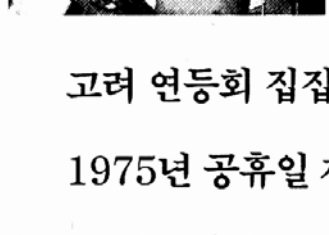
1938년 '석존관탄기념 불국회'가 총독부의 방지로 양력 4월8일에 초파일 법회를 개최했다. 노방전도(路傍傳導) 즉, 거리 행사는 1939년 불타대전봉행회 주최로 열린 불타탄생 불국식에 이어, 중로탑골공원에서 처음 열렸다.

●장엄물과 문화행사

연등 이외의 화려한 장엄물은 1925년 표충사에서 처음 등장했다. 표충사는 이때 1천 등을 밝히고 탑 학 거북이 룬선(輪船) 백로 비행기 등 다양한 형태의 장엄물을 선보였다.

1959년에는 서울 종로-을지로-광화문에서 제등행진과 함께 꼬끼리 장엄물이 처음 등장해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979년부터 전국 각지로 제등행렬이 확산되면서, 각종 장엄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2년에는 서울시가 4·8 불국축을 처음으로 건립해 불국축 정동의 호시가 되었다.

한편 조선불교청년총동맹과 경성동맹은 1932년 석존성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강연 및 '아란과 마다가' 등 연극 공연 등 문화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어 경성제국대학 불교청년회가 1934년 조선



△왼쪽 위에서부터 조선말 종로의 연등상경, 1972년 부처님 오신날 세계경회기원대제, 1975년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제정, 경축대강연회, 1989년 동대문운동장 연등축제.

이 무장경찰에 의해 유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교계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계사에서 경찰 폭력 만행 규탄 및 불교주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91년에도 여의도에서 시작된 제등행진 때 비구니 스님과 어린이들의 행렬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러, 5월 20일 최루탄 발사 규탄 시위가 열렸다. 이어 24일에는 제등행렬 최루탄 발

행사는 계엄령 관계로 모두 중지됐다. 당시 380만명에 달하는 신도들은 재연된 불교계의 분장이 가라앉길 기원했다.

1979년에는 분규를 겪던 조계종이 조계사 및 개운사에서 각각 별도의 불국 법요식을 개최해 민심을 식다. 1980년 5월 21일의 불탄일 범법교연합 불국행사는 조계종 분규로 취소되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범종단 차원의 제등행진은 1982년 처음 벌어져, 18개 종단 20만여 불자가 참여한 제등행렬이 장관을 이뤘다. 이어 1984년 18개 종단 대표가 참가해 '나라와 국가원수를 위한 축원법회'를 봉행했다.

1993년 부처님 오신날부터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가 활기차게 펼쳐졌다. '화엄경 선재동자' '탈속' '사모곡' 등 불교연극을 비롯해 전시 강연 국악공연 등이 열렸으며, 여의도에서 열린 불국 대법회 및 제등행렬이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져 개최됐다.

1995년 다시 여의도에서 부처님 오신날 불국 제등행렬 및 대법회를 봉행했으며, 5월 5일 조계사에서는 첫 외국인 노동자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1996년 제등행진이 다시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졌고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종로로 곳곳에서 거리 연등축제를 시민축제로 열고 있다. 96년부터 불국행사는 불교계만의 단순한 제등행진과 기원법회라는 의례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등축제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고려 연등회 집집마다 등 밝혀

1975년 공휴일 제정 '국민축제'

불교 전적전람회를, 조선불교중앙교무원과 나남관부불교회는 1936년 연극과 동극대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제정

조계종은 1968년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날'로 명칭을 통일했다. 1969년 2월에는 불교 13개 종파가 대표자회의를 열어 4·8 공휴제정운동을 결의했다.

이후 1975년 1월 14일에는 부처님 오신날이 드디어 공휴일로 제정됐다. 공휴일이 된 첫 부처님 오신날인 5월18일을 기념하기 위해 불교예술탈단이 11일부터 부처님 오신날까지 개최했다.

1981년 5월11일 부처님 오신날에는 국무회의에서 통공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모범재주자 587명을 특별 가석방했다.

●초파일 전후 훼손사건들

1989년 부처님 오신날은 불국 제등행렬

포에 대한 시경경찰의 사과가 있었으나, 25일에는 불교탄압 규탄 범불교대회 조계사에서 열렸다.

1996년에는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서울 삼성동, 본원정사, 화계사 등에서 잇따라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전례 청통사에 목사가 난입해 불상과 탱화를 파괴하는 등 훼손행위가 계속되어 1천만 불자가 경악케 했다.

●종단분규 때의 불국

1955년 비구·대처승간의 분규로 비구측 선화원과 대처측 총무원이 분리되어 불국 법요식을 따로 봉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총무원 측은 창경원에서 석가세존 탄신일을 축복했고, 선화원은 조계사에서 불전 예식을 거행했다.

1960년 5월3일 4.19사태로 비구·대처승간에 분규가 재연된 스산한 분위기속에서 해마다 거행되어온 관동행렬 등 육의

목탁소리

강지연 (뉴미디어부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불국 열차가 10일부터 지하철 5호선에서 운행되기 시작했다. 불국열차 운행이 알려지자 서울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는 타종교인들의 항의성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하철이 특정종교 자가용입니까? 발상 자체가 참 한심스러우며, 대선을 고려한 집권당의 모략인지 아니면 공사가 일어서 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등의 항의성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모자라 일부 타종교인들은 협박전화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동차 내부에 봉안했던 불상도 훔치 모를 훼손에 대비해 아예 철거하고 10여명의 직원들이 항상 전동차에 타고 대기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 이벤트가 잡혀 있는 날은 몰지각한 타종교인이 공연을 방해할까봐 앞에서 지키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에도 산타열차가 운행됐었다. 특정종교만 편애하여 문화열차를 편성한 것도 아닌데 일부

불국열차 무사 기원

타종교인의 반응은 과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산타열차나 불국열차나 특정 종교의 명절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므로 서로가 이해하고 축하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도시철도공사 게시판에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불국열차에 대해서만 배척하는 행위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기 싫다면, 다음 열차를 타는 것이... (오윤석, youn8691@hite.net)", "기독교의 문화라 할 수 있는 '산타열차(성탄열차)'도 운행했습니다. '불국열차'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모진 기독교인들이 열차를 망가뜨릴까봐 걱정입니다. (원정연, helpwjr@hanmail.net)" 등의 우려의 글들도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건전한 종교인들은 이웃종교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극소수의 광신자들은 매년 초파일을 전후해 훼손사건을 야기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6월30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무사히 운영되도록 타종교를 배려하는 성숙함을 기대해 본다.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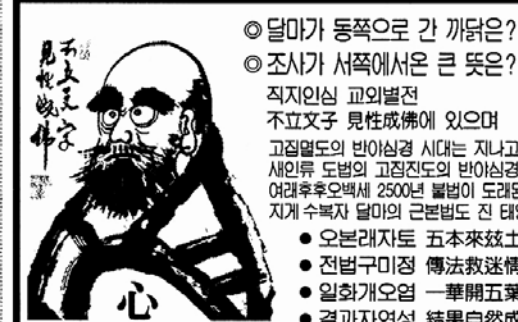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2201-3333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 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작품

2001년 신사년 진인도통 경신기도 입제일 안내

이경신 (양) 4월 26일 밤 입제 27일 밤 해제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전하의 비법이 다 들어있다.

- 지구촌 종말론이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정감록에 감춰진 승리산 채순현 선생에게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듣는다.
● 동양철학과 풍수지리에 감춰진 명법법의 비밀을 벗근다. 태일대사 직강
● 12생들이 들어가 할 명법비법과 시주화, 운명학, 상명학, 풍수지리학, 양택·음택, 사주명법법을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직강회 참관기 강의법 명당은 아니다 들어갈 수 없는 법이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신가? 무엇을 고만하십니까? 귀하는 인생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 경신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았던 달마상의 비법은 세태양의 법도로 통한다. 수백년간 조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인, 진학, 고시 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 달마도상을 한집에 한달마를 모시어 소원성취하시고 후대용 승급골드 999 달마상 지니시어 삼재소멸 건강, 부귀영화, 수명장수 말문이 터지지 않는 분 및 각종 경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북학, 이번 법회에 달마상기생무기공 달마봉으로 건강은 삼복에 있고 수명은 삼백에 있으며 부귀영화는 삼복에 있으니라. 이 법은 조사께서 번역 9년 수행하신 경진법법을 공개하시어 동참하시어 건강지도가 되소서.

윤달드는 해 진태양 서성명성 대 응맹정진 사명자 제 63회 眞人도통 庚申大法會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말법도인들은 재물을 눈이 어두워 만물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세월속에서 다같이 깨어나 천년에 한번드는 1월 1일에 감자일이 시작되는 해인법도에 감추어진 대비밀양의 기도 임을 명심할지이다. 이 기도에 임하는 분들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4월 26일 4월 27일, 자시와 오시에 상동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갖대를 얻어 증상은 120세의 천안속 속명통에 도전하여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잠시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을 대자연의 천지신명과 열라대왕에 진법을 받아 사명자 도인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지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거리는 잡도에 끌리어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 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즉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日本은 우리의 강산에 쇠물을 부고 중국현황에는 우리의 마음에 쇠물을 부은 사실을 당신은 알고계십니까?

우담바라의 비밀을. 2000년 5월 9일의 하늘의 대서사서의 광경은

이 법의 소식은 萬·形·象법의 갖대로 설계 범속, 범적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있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능하며, 다만 잠신에 끌리어 억망진장을 왜 모르며 몸에 대산같은 중병과 육신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말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 풍을 특히 이번 법회에 두드러하시어 몸에 천병, 잠신, 살이찌는병을 소멸하시고 위로는 거저저는 민족의 혼과 일을 찾고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명자, 진인 도통 일류 스승 되소서.

- 입 제 : 양력 4월 26일 밤 10시 ~ 4월 27일 亥時에 해제
●동참금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목요일 밤 입제
●온라인 : 능협 029-01-167866 24시간 전선속 동참
(02) 821-6622 / 04 923-3110 / 821-7767-8 / 016) 239-3110
(1호선 노랑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출구 버스 85, 25, 95, 26, 303, 142, 26-3 모차원고개 하차. 동작구약사회목욕구

사명자 모임, 진인경신도통회강 한국불교 달마중 승 본산 약사도방 달마선원장 天龍 泰日法師